

미국의 인도-태평양 소다자주의 안보 전략*

- 위협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

조 현 덕**

•요 약•

미국은 중국을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일대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도전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진주목걸이 전략은 중국이 더 이상 평화로운 부상(peaceful rising)을 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월트(Walt)의 위협균형 이론(Balance of Threat Theory)을 토대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의 균형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QUAD 2.0이 재출범했다. 미·중 양국에서 헤징 전략을 추진하던 중견국가(middle powers) 호주와 인도는 QUAD에 재참여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1년 9월 출범한 AUKUS에 대해 미국의 '최상위 동맹체'로 간주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이 AUKUS, QUAD 및 Five Eyes 등 소다자주의 안보 협의체를 활용하여 스크럼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본다.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하였던 양자 동맹(bilateral alliances) 기조에서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한 스크럼 전략을 네트워크화시키고, 스크럼 전략의 효용성과 한계를 분석·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인도-태평양 전략, 위협균형 이론, 소다자주의, AUKUS-QUAD-Five Eyes, 스크럼 전략

I. 서론

중국은 미국 중심의 '규칙에 기반한(rule-based) 국제(지역)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 세

* 이 논문은 2022년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학술연구과제 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해군사관학교 영어학과 조교수, advantage369@naver.com

력으로 부상했다. 클린턴 미 행정부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성공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중국이 세계 자본시장 흐름에 편입되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예상과 달리, G2로 부상한 중국은 부유해진 자본력을 바탕으로 일당 독재체제(one-party rule)를 더욱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군사력 등 하드파워를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2013년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고 중국은 육군 중심의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PLA)에 대해 대대적인 군 개혁을 단행했고, 공격형 중심의 해군력(PLAN)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 미 의회보고서(CRS Report)¹⁾에 따르면 201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 해군의 함정 척수(전투함 기준)가 미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 함정의 척수를 추월했다. 이후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를 군사 기지화하고 해상 기동훈련 횟수와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해양굴기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함(Liaoning, Type 001),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Shandong, Type 002)에 이어 2022년 취역한 푸젠함(Fujian, Type 003, 2024년경 전력화)까지 총 3척의 디젤 추진(diesel-powered)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해군 전력은 남중국해 및 서태평양 일대에서 미국의 영향력(leverage)을 거부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본 논문은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가 주장하는 위협균형 이론(Balance of Threat Theory)²⁾을 토대로 미국이 중국의 부상 및 해양 팽창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2017년 11월, 미국과 일본은 2007년 출범하였으나 사장된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1.0)를 재정립하였다. 인도, 호주를 다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의 주요한 행위자로 끌어들이는 것이다(2017년 QUAD 2.0의 재가동). '민주주의 다이아몬드(democratic diamond)'로도 불리는 QUAD 2.0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이 공동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결집한 전략적 연대라고 평가받고 있다.³⁾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FOIP 가치를 중심으로 재출범한 QUAD 2.0은 인도·태평양 역내의 동맹·우방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을 적

1) O'Rourke, Ronald,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 page of summary(검색일: 2021.07.30).

2)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3) 이정훈·박재적,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상황인지’ 현황과 ‘쿼드(Quad)’ 국가의 기여: 쟁점 및 전망”, 『국가안보와 전략』 제20집 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p.3.

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9월 15일, 미 백악관은 오커스(AUKUS)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논평했다. 미 행정부는 해당 외교·안보 3자 협의체(AUKUS) 성명서(statements)에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호주 해군이 핵추진(nuclear-powered)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⁴⁾ 미국 정부는 AUKUS 출범으로 호주, 영국, 미국 등 3국의 해양 민주주의(maritime democracies) 국가들이 합동 군사 능력(joint capabilities)과 상호 운용 능력(interoperability)을 증대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⁵⁾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격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호주 정부는 AUKUS 가입으로 화답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미 동맹, 미·일 동맹, 미·필리핀 동맹 등의 전통적인 양자 동맹(bilateral alliances)과 더불어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로 알려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를 활용하여, 전후(戰後) 미국이 제도화한 세계 질서(world order)를 유지 및 강화하고 중국의 하드파워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AUKUS, QUAD 및 Five Eyes 등의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안보 협의체들을 촘촘히 구축하여 중국의 해양 패권 지위 추구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현재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 정부 주도로 가동되고 있는 AUKUS, QUAD, Five Eyes에 주목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냉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역내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양자 동맹 관계를 중시하였다.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트럼프·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QUAD 2.0(2017년), AUKUS 1.0(2021년)이 각각 출범하면서 미국의 아·태평양 및 인도양 대외 외교(양자 관계 중심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QUAD, AUKUS 등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하고, 주요한 행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국가들만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소다자주의 혹은 ‘배타적(exclusive)’ 다자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냉전기부터 존재해 왔던 Five Eyes도 대표적인 소다자주의 기밀정보 공유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status quo)에서 본 논문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3자 AUKUS,

4) 미 백악관이 논평한 AUKUS 출범 선언서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As the first initiative under AUKUS, recognizing our common tradition as maritime democracies, we commit to a shared ambition to support Australia in acquir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for the Royal Australian Navy. (이하 중략) The development of Australia’s nuclear-powered submarines would be a joint endeavor between the three nations, with a focus on interoperability, commonality, and mutual benefit(The White House, “Joint Leaders Statement on AUKUS”, 15 September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9/15/joint-leaders-statement-on-aukus/>(검색일: 2022.05.01).

5) *ibid.* 참조.

4자 QUAD, 5자 Five Eyes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나아가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 포위전략, 즉 스크럼(scram) 전략 구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미국은 전방위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역내에서 뜻이 맞는(like-minded) 주요 동맹·우방국들과 협력 하면서, 이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소다자주의 안보 협의체인 AUKUS, QUAD 및 Five Eyes 등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추적인 스크럼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본 논문은 스크럼 전략 구상에 대한 효율성과 스크럼 전략의 한계 및 전망을 분석·도출하고자 한다.

II. 트럼프-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1. 선행연구 분석

본 논문이 주장하는 스크럼 전략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김덕기(2020)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베 총리가 제안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됨과 동시에, 해당 역내에서 평화로운 해양 질서 유지라는 개념보다는 해양 경쟁과 세력균형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⁶⁾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역내 국가들과도 경제·군사적 협력을 확대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기수·박종철(2021)은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중국 견제라는 배타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식어 사이에서 상호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역내 동맹국들에게 안보, 경제 영역 등에 상당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동맹 의존적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편승’이라는 비(非)강대국이 취할 법한 비대칭 동맹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국력을 보완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⁷⁾ 대중국 강경 정책을 표방하는 FOIP 전략이 오히려 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되지 못한 지역이 되도록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미·중 간의 해양 패권 경쟁 상황 속에서 중견(middle) 및 군소(minor) 해양 세력

6) 김덕기, “미국의 공세적 인도-태평양 전략 관점에서 본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논단』 제100집 1호, 한국군사학회, 2020, pp.92-93.

7) 김기수·박종철,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에 대한 연구”, 『韓中社會科學研究』 제19권 제2호(통권 59호), 2021, p.58, p.65.

들에게 양자택일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강요할 수 있고, 이는 지역 내 해양 양극화(maritime polarization)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FOIP 전략이 중국 내 강경론자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⁸⁾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인도-태평양 역내를 바라보는 주요 중견 국가들(middle powers)의 입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임경한(2018)은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인도의 대응은 전형적인 헤징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인도 국경 분쟁이 수십 년간 계속 발생해 왔지만, 인도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국경 분쟁과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 정책과 전략적 자율성을 고수해 왔던 인도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⁹⁾에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당위성을 직시 및 견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군사·안보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일대일로 자본이 호주의 정·관계 및 학계에 깊숙이 관여되고, 남태평양 역내 도서 국가들(island states)에게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헤징 전략을 추구하는 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경계하면서도 경제적인 이득은 취하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조하여 해양 군사안보 협력은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⁰⁾

본 논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태평양 역내의 주요 중견국들이 미국의 전략과 뜻을 함께하는 동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태동하게 된 원인과 그에 수반되어 출범한 QUAD, AUKUS 등의 소다자주의 안보 협의체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을 증추적으로 지탱하는 QUAD, AUKUS 및 Five Eyes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더구나 인도-태평양 전략이 태동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부상과 패권 추구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시각에서만 국한되어 연구·분석된 경향성을 드러낸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동아시아 역내 패권 구도 수정 움직임에 대하여 선행 연구된 구조적 현실주의 기조를 따르되, 월츠(Kenneth N. Waltz)의 ‘세력균형’ 이론을 발전시킨 왈트(Stephen M. Walt)의 ‘위협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미국과 역내

8) 정호섭, 『미·중 패권경쟁과 해군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총서 93, 2021, pp.281-282.

9) 인도는 2017년 11월 QUAD 2.0에 재가입하기 직전인 2017년 6월,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에 가입했다.

10) 임경한,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와 호주의 대응”, 『東亞研究』 제30권 4호, 2018, pp.13-26.

중견국들이 중국발 세력전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이론적 근거¹¹⁾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력균형 이론보다 위협균형 이론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역내 중견국들이 동참하게 된 요인을 적절히 설명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왈트가 주장하는 위협균형 이론을 토대로 미국이 중국의 부상 및 해양 팽창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전략과 AUKUS, QUAD 및 Five Eyes를 연계 및 네트워크화시킨다. 본 논문은 인도-태평양이라는 통합된 광범위한 역내에서 AUKUS, QUAD 및 Five Eyes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시키는 3-4-5 스크림 전략을 구상하고 그 효용성과 한계를 제언한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베트남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¹²⁾을 강조했다, 아베 정부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및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해양 질서를 재확인(reaffirm)한다는 국가 대전략(A U.S. Grand Strategy)¹³⁾으로써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보다 대중국 견제의 성격이 뚜렷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¹⁴⁾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더불어 2007년 출범하였다가 사장된 쿼드(QUAD 1.0)를 2017년 11월 재출범(QUAD 2.0)시켰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재결집한 QUAD 2.0에 원년 멤버였던 호주와 인도도 재가입하면서 QUAD는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주요한 해양안보 협의체로 작동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19년 6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국제질서를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로 규정하고, 중국 공산당을 미국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년 11월 미 국무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망에 대한

11)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경기 과주: 도서출판 한울, 2009, pp.122-123.

12) 트럼프 대통령은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법치(rule of law), 억압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coercion), 주권(sovareignty), 시장 질서(private enterprise and open market)” 등을 강조했다(김재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략의 성격과 성패의 관건”, 『新亞細亞』 제29집 2호, 신아시아연구소, 2022, p.10.

13) O’Hanlon, Michael, “A U.S. Grand Strategy of Resolute Restraint and Indo-Pacific Allies,” 『한국국가전략』 제6집 1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pp.123-142.

14) 조양현,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 일본 외교”, 『주요국제문제분석』2017-63[201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p.1, p.8.

보고서(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를 공개하면서 향후 추진될 인-태 전략의 동향을 제공했다. 아울러 미국은 2020년 5월 ‘대중국 전략보고서(U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경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대일로와 연계되어 대규모의 차이나 머니를 투자받고 있는 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경계하고 있다. 일대일로 투자를 받는 국가들에 대한 베이징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해당 국가들에 대한 중국군(PLA, PLAN)의 해외 군사기지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⁵⁾

2017년 QUAD 2.0의 재출범을 통해 일본과 호주를 포함하여 결정적으로 인도를 역내의 주요한 행위자로 끌어들이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태 전략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¹⁶⁾ 김재천(2022)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공과(功過)를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보여준 배타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및 거래주의에 입각한 동맹정책은 인-태 전략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한다.¹⁷⁾

3.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용 및 보완하고 강화된 대중국 견제 노선¹⁸⁾을 취하고 있다. 2021년 3월 백악관에서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 잠정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국방력과 더불어 외교력을 제1의 가용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의 공식 외교 채널을 상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바 있다.¹⁹⁾

15) 김성한·김민성, “인도·태평양전략 대 일대일로의 충돌 동향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전략연구』 제28집 2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pp.13-14;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RC 2020”(검색일: 2022.07.09).

16) 미국·일본 주도의 QUAD 2.0 재출범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헤징 전략을 채택했던 인도가 QUAD 협의체에 재참여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전통 동맹국인 호주도 2010년대 중반까지 미·중 양국 사이에서 헤징 전략을 취했지만, 이후 미국 중심의 균형전략(balancing)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다.

17) 김재천(2022), *op. cit.*, pp.10-14.

18)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국무부 및 국방부 방문 연설에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인 중국(our most serious competitor, China)”, “중국으로부터 증대되는 도전(growing challenges posed by China)” 등의 발언을 하면서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을 언급했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권익 확보를 강조했다(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America’s Place in the World”(검색일: 2022.09.20);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to Department of Defense Personnel”(검색일: 2022.07.09).

2021년 3월 개최된 최초의 QUAD 정상회의(화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재강조하였고, QUAD 멤버국 및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들의 협력과 지지를 호소했다.²⁰⁾ QUAD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 세력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항행의 자유(FON)를 포함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재확인한 것은 중국의 해양굴기와 역내 패권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시그널로 인식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동맹 중시 전략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뜻을 함께하는 역내 국가들과 정치(민주주의 체제)·경제·군사 안보 등 전방위적인 인-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9월 15일 출범한 AUKUS는 군사 안보 측면에서 미국이 반세기가 넘도록 태평양 역내에서 고수했던 양자 동맹 기초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영국 및 호주 3국이 맺은 AUKUS 군사동맹은 사이버, 인공지능 등 최첨단 과학 기술 분야부터 장거리 공격, 실시간 네트워크 등의 국방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호주 해군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정보 공유 약속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미국이 AUKUS를 ‘최상위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AUKUS 멤버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군사·안보적 신뢰가 전통적인 양자동맹 국가들과 유럽의 핵심 다자안보 협의체인 NATO 회원국보다도 우선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²¹⁾ AUKUS에 대한 미국의 안보 ‘쏟림’ 현상은 대중국 견제 연대 기초에서 미국과 뜻을 함께하는 동맹·우방국에게 동맹의 경중(gravity of alliances)이 ‘서열화(placing)’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비(非) AUKUS 동맹·우방국들 간에 이와 같은 인식이 확산된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원활히 작동하는 것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핵보유국인 미국은 영국과 나란히 핵확산 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저촉될 수도 있는 사안을 감수하면서까지 호주에게 원자력 잠수함을 제공(수출)하고 관련된 고급 핵심 기술도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고, 호주는 AUKUS 가입으로 화답했다. 미국은 NATO 및 기타 동맹국들의 동맹 서열화 의식을 감지하면서도, 대중국 견제 전략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남태평양에 있는 호주에게 적극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AUKUS의 출범과 호주 해군에 대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밀 공여는 미국이 러시아보다 굴기하는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19) 김재천(2022), *op. cit.*, pp.15-16.

20)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Prime Minister Modi of India, Prime Minister Morrison of Australia, and Prime Minister Suga of Japan in the Virtual Quad Leaders Summit,” 12 March 2021(검색일: 2022.09.20).

21) 김용민, “AUKUS 출범으로 변화하는 유럽안보 -전략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40집 1호, 한국유럽학회, 2022, pp.166-167.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태 전략을 통해 군사·안보 분야에서 역내 양자 동맹(파트너) 중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AUKUS, QUAD 및 Five Eyes 등으로 구성된 소다자주의 안보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Ⅲ. 위협균형 이론과 미국의 대중 인식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AUKUS-QUAD-Five Eyes 스크럼 전략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formidable) 해륙 세력의 면모를 갖추고 대내외적으로 역내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는 중국의 수정주의 움직임(revisionism)을 견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왈트가 주장한 위협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을 위협(종속변수)으로 인식하는데 충분조건이 되는 복합 위협 요인들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복합 위협 독립변수 중 하나인 ‘공격적 의도’를 독립변수(공격적 군사력)의 범주에 통합시켜 분석한다.

1. 전체적 힘: 중국의 G2 부상

덩샤오핑 정부의 개혁·개방 경제정책 이후 중국은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01년 WTO에 성공적으로 가입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편승하여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원했다. 하지만 독일·일본 등을 차례로 제치고 2010년 2위의 경제 대국(GDP 기준)²²⁾으로 부상한 중국은 일당 독재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²³⁾ 2013년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고 중국은 화평굴기에서 벗어나 미국에게 ‘신형 대국 관계’²⁴⁾²⁵⁾를 요구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중국은 2012년부터 2021년(2.2% 성

22) 연합뉴스, “중국 日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 부상 확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816800055>(검색일: 2022.03.10).

23)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 무역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2013년 출범한 시진핑 정부도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자유무역 및 시장자유화를 유지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은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개방 이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조은정, “바이든 대중국 강경책 유지할 것...미국 경쟁력 강화”, 『VOA』,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biden-china-policy/6048417.html(검색일: 2022.04.09)).

24) 김한권, “중국 신형국제관계의 본질과 함의”,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8-1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 2018, pp.14-16.

25) 퍼거슨(Ferguson)은 2008년 11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과 다방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의 관계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당시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게 미·중 정상회담을 촉구했다(Ferguson,

장률을 기록한 2020년은 제외)까지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중국의 GDP는 8조 5,322억 달러(2012년)에서 13조 8,948억 달러(2021년)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2012~2021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 내외를 기록했고, 미국의 GDP는 16조 2,540억 달러(2012년)에서 22조 9,961억 달러(2021년 기준)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중국의 경제학자로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린이푸(林毅夫)는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연평균 약 9.4% 성장을 기록했고 향후 8%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9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약 6만 5,095달러)의 16%에 불과했다. 그는 중국 인구가 미국의 네 배로 중국의 1인당 GDP가 미국 절반에 육박한다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2030~2040년 연 4~5% 및 2040~2050년 연 3~4%의 고속 성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²⁶⁾ 일각에서는 린이푸의 중국 경제 낙관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²⁷⁾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지역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한 미국은 경제력 측면에서 패권 부상국이 미국 GDP의 60%에 근접 또는 초과 시 상당한 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s)를 행사해 왔다. 도전국에 대한 미국의 소위 ‘GDP 60% 레드 라인(red line)’인 셈이다. 냉전기 미국과 더불어 양극 체제를 담당했던 소련의 GDP가 미국의 60%를 초과했을 때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대소련 강경 경제정책을 펼쳤고, 소련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당해 낼 수 없었다. 미국은 1970년대 초·중반부터 경제 2위로 부상한 일본을 견제했다. 이후 1980년대 중반 일본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으로 GDP가 미국 GDP의 60%를 상회하자 미국은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²⁸⁾를 입안했다. 이후 2위 일본의

Niall, “Term ‘Chimerica,’” 『The Washington Post』, 17 November 2008(검색일: 2022.07.24); 하지만 퍼거슨 및 슐라릭은 이듬해 10월 “The End of Chimerica”라는 제목의 워킹 페이퍼를 발표했는데, 중국 정부의 화폐(위안화) 개입과 위안화 절상 저항 등의 행위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곧 장밋빛 차이메리카의 종말을 예고한다고 주장했다(Ferguson, Niall and Schularick, Moritz, “The End of Chimerica”, Working Paper 10-037, Harvard Business School, pp.1-26).

26) 유상철, “중국 경제, 2030년 美 추월...2050년엔 美 패권 중지부”,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4466>(검색일: 2022.03.11).

27) 린이푸의 논리대로 중국이 지속적인 고속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 부진, 부동산 버블, 거대 국유 기업의 비효율적 운영 및 과도한 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김규환, “중국 경제국사(國師) 린이푸의 위험한 낙관론”,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4029015>(검색일: 2022.09.14).

28) 미국은 달러 강세를 시정하기 위해 1985년 9월 22일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G5 재무장관들과 회의를 열었고, 결과적으로 G5 정부들의 외환시장 개입 약속을 이끌어 낸다. 일명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이다. 이후 미국은 달러화 약세라는 순풍을 타고 제조업 호황을 누렸지만, 일본은 엔화 강세에 직면해 수출이 둔화되고 버블 경제가 붕괴되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GDP는 미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²⁹⁾

소련·일본의 사례에 이어, 2010년대 중반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60%를 돌파했다.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상당수의 미·중 경제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여러 경제 지표에서는 향후 예측 가능한 시기인 2030년대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가 더욱 가시적으로 감소(discrepancy reduction)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대중국 견제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미(對美) GDP 60% 돌파(독립변수)를 국가안보의 위협(종속변수)으로 인식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시킨 대중 무역 전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수면 위로 오른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은 자국의 국력 강화 및 국방 예산의 증가로 직결된다. 본 논문은 후술하는 독립변수(공격적 군사력 및 공격적 의도)에서 시진핑 정부가 해양굴기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군력(PLAN) 증강을 조명한다.

2. 공격적 군사력(공격적 의도) : 중국의 PLAN 증강과 미·중 해군력 비교

2020년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과 연관된 군사·안보 개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제목의 연례 보고서(DoD's annual report to Congress)를 보면,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군사력(하드 파워)이 지난 20년 동안(2000년~2020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³⁰⁾ <표 3-1> 참고.

2022년 3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는 중국 해군(PLAN)이 1990년대 중반부터 25년이 넘도록 최근까지 꾸준히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 해군이 서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이르기까지 가공할 만한(formidable)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해군력이 급속히 증강됨에 따라, 서태평양에 대한 미국(미 해군력)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PLAN의 군 현대화 사업과 해양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여, 미 해

29) “국제논평: 60%는 미국이 경쟁자에게 준 최저선”, 『China Radio International』, <http://korean.cri.cn/1660/2018/08/10/1s259382.htm>(검색일: 2022.09.01).

30) 조현덕·이정태,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를 위한 투트랙 전략 -맞대응 및 회피전략을 중심으로-”, 『大韓政治學會報』 제29집 4호, 대한정치학회, 2021, pp.137-143.

군은 전체 전력에서 톤수 기준 대형 함정의 비중을 줄이는(a smaller portion of larger ships) 반면, 중·소형 함정의 비중을 확대(a larger portion of smaller ships)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상당한 규모의 무인 전력 자산(unmanned vehicles/crafts)을 투입·운용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³¹⁾

〈표 3-1〉 중국 PLA의 시기별 군사 역량 비교

연도별 시기	군사 역량	PLA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군사기지 네트워크 후보지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capabilities), 조직 체계(organization) - 현대전 준비(readiness for modern warfare) 등의 요소가 상당히 미숙 	-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군사지평(military footprint) 확장 - PLA의 합동작전(joint operation) 숙달 	<p>지부티(logistics support facility, 2017), 캄보디아(naval base, 2022)</p> <p>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UAE, 케냐, 탄자니아, 앙골라</p>

출처: 조현덕·이정태(2021), pp.133-134를 참고 및 저자가 도표화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이 수상함, 잠수함, 항모 등 대략 총 355척의 전투 함정을 보유하고 분석하면서, 이는 전체 미 해군력의 전투함 규모를 능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 해군의 전투 함정 전력이 2025년과 2030년까지 각각 420척, 460척으로 지속 증강될 것으로 예측했다. CRS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수상함, 잠수함 등의 전투 함정 규모를 증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첨단 군사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함 탄도 미사일(ASBMs), 대함 순항 미사일(ASCMs) 및 C4ISR(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시스템 구축 등 향상된 군사 플랫폼 기술 습득을 목표로 군사 현대화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다.³²⁾

31) O'Rourke, Ronald(2022), *op. cit.*, page of summary.

32) *ibid.*, pp.2-3.

〈표 3-2〉 미·중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전력 비교(2000~203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1	1	3	4	4	6	8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5	4	5	6	7	10	13
Diesel attack submarines	56	56	48	53	55	55	55
Aircraft carriers, cruisers, destroyers	19	25	25	26	43	55	65
Frigates, corvettes	38	43	50	74	102	120	135
Total China navy battle force ships, including types not shown above	210	220	220	255	360	400	425
Total U.S. Navy battle force ships	318	282	288	271	297	<i>n/a</i>	<i>n/a</i>

출처: “UPDATED China: Naval Construction Trends vis-à-vis U.S. Navy Shipbuilding Plans, 2020-2030,” February 2020, p.4: O’Rourke, Ronald(2022) 재인용. * n/a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불가능을 의미함.

〈표 3-2〉에서는 중국 해군력의 총 전투함 전력으로 각각 400척(2025년), 425척(2030년)으로 명시되어 있다(2020년 2월 기준). 하지만 미 국방부가 2021년 수정하여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PLAN의 총 전투함 규모는 2025년 420척(+20), 2030년 460척(+35)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2020년의 분석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치이다. 중국의 신형 함정 건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노후화된 함정이 퇴역하지 않고 계속 임무에 투입되는 등의 요인으로 이러한 불일치(discrepancy)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³³⁾ 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및 수상함(구축함 등) 상당수는 디젤 추진 함정이다. 미 해군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핵 추진(원자력) 잠수함 및 항모 전력과 비교하면, 중국 해군의 재래식 자산은 작전 환경에 제약이 많고 작전 수행 능력도 떨어진다. 그러나 최근 중국 해군이 보유한 전투 함정 전력 규모가 미 해군력을 추월했다는 것은 미·중 해군력 비교·분석 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³⁴⁾

3. 지리적 인접성: 해륙 세력 중국의 해외기지 확장

1) 아프리카 지부티

중국은 강력한 해륙 세력으로서 해상굴기를 표방하고 해외 거점의 군사기지를 확장하

33) *ibid.* p.9.

34) 조현덕·이정태, *op. cit.*, p.133.

고 있다.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이다. 중국은 2017년 아프리카 북동부 아덴만 서쪽 연안에 있는 지부티(Republic of Djibouti)³⁵⁾의 오보크(Obock) 항에 자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부티 정부의 승인으로 오보크 항구를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항만 사용권은 10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지부티 정부에게 기지 임대료로 매년 2,000만 달러(약 270억 원)를 지급하고 있다.³⁶⁾

2015년 11월 24일, 당시 미국 아프리카사령부(U.S. AFRICOM) 사령관이었던 데이비드 로드리게스(David Rodriguez) 육군 대장은 더 힐(*The Hill newspaper*)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부티에서 아프리카 대륙 내 최초의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중국은 2015년 5월, 국방백서(white paper)에서 PLAN이 기존의 ‘연안 방어(offshore waters defense)’ 개념에서 탈피하여 ‘원해 방위(open seas protection)’와 ‘연안 방어’가 결합된 형태로 역량을 점진적으로 집중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³⁷⁾ 로드리게스 사령관의 발언 직후,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Ismail Omar Guelleh) 지부티 대통령도 자국 내 중국의 기지 건설·운영을 인정했다. 중국이 운영하는 오보크 항은 미 해군 원정군이 주둔하고 있는 르모니에 기지(Camp Lemonnier)에서 불과 30마일(약 48km)가량 떨어져 있다.³⁸⁾

중국과 지부티는 1979년 수교를 맺었다. 1979년 이후 지부티 대통령은 10여 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지부티 총리도 수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2015년 11월 7일 팡펑후이(房峰輝) 총참모장(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직)이 지부티를 방문하여 겔레 대통령을 접견하고 8일, 지부티 항에서 군수 물자를 보급 중이던 중국 해군 호송함대 산야함(三亞艦)을 시찰한 바 있다. 양정학·김순수(2017)는 중국이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확보함으로써 (1) 아덴만 호송함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2) 중국의 해외이익을 보호하고 (3) 해양강국 건설과 일대일로 전략에 필요한 요충지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³⁹⁾

35) 지부티의 연안은 인도양과 홍해(수에즈 운하)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 가량이 지부티의 근해를 통과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도 소말리아 등에서 발생하는 해적을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지부티 영토 내에서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36) 이장훈, “날개 단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주간동아』,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832374/1>(검색일: 2022.0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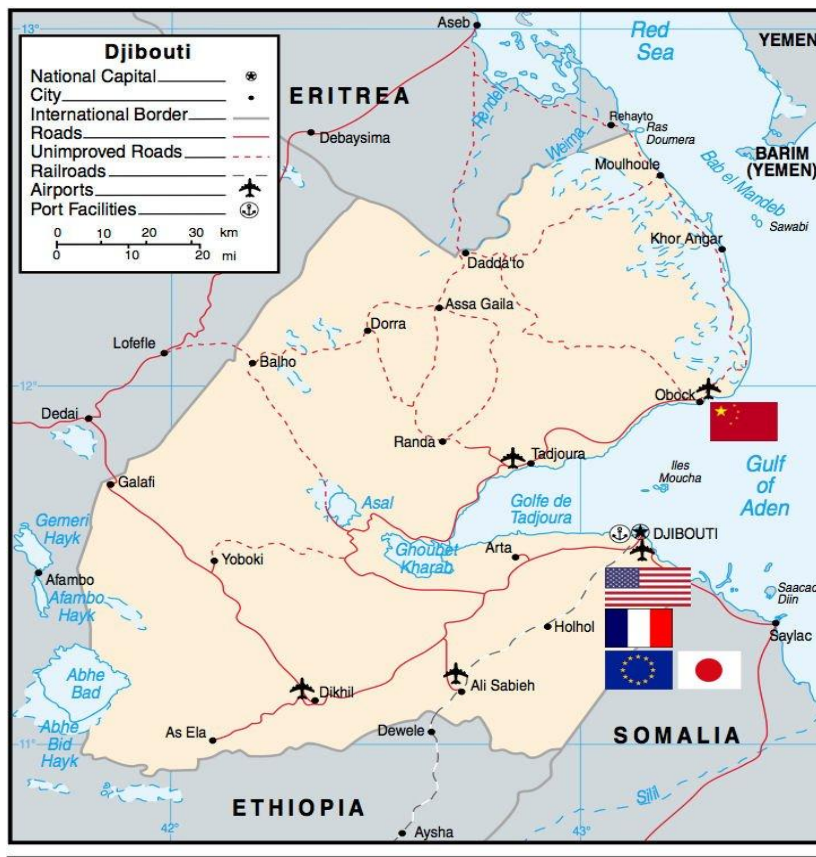
37) Wong, Kristina, “China’s military makes move into Africa”, 『The Hill』, <https://thehill.com/policy/defense/261153-chinas-military-makes-move-into-africa/>(검색일: 2022.06.20).

38) LaGrone, Sam, “U.S. AFRICOM Commander Confirms Chinese Logistics Base”, 『USNI News』, U.S. Naval Institute, <https://news.usni.org/2015/11/25/u-s-africom-commander-confirms-chinese-logistics-base-in-djibouti/>(검색일: 2022.05.02).

39) 양정학·김순수, “중국의 지부티 군사보급기지 건설의 전략적 함의”, 『新亞細亞』 제24집 2호, 신아시아연구소, 2017, pp.134-135, pp.137-143.

2)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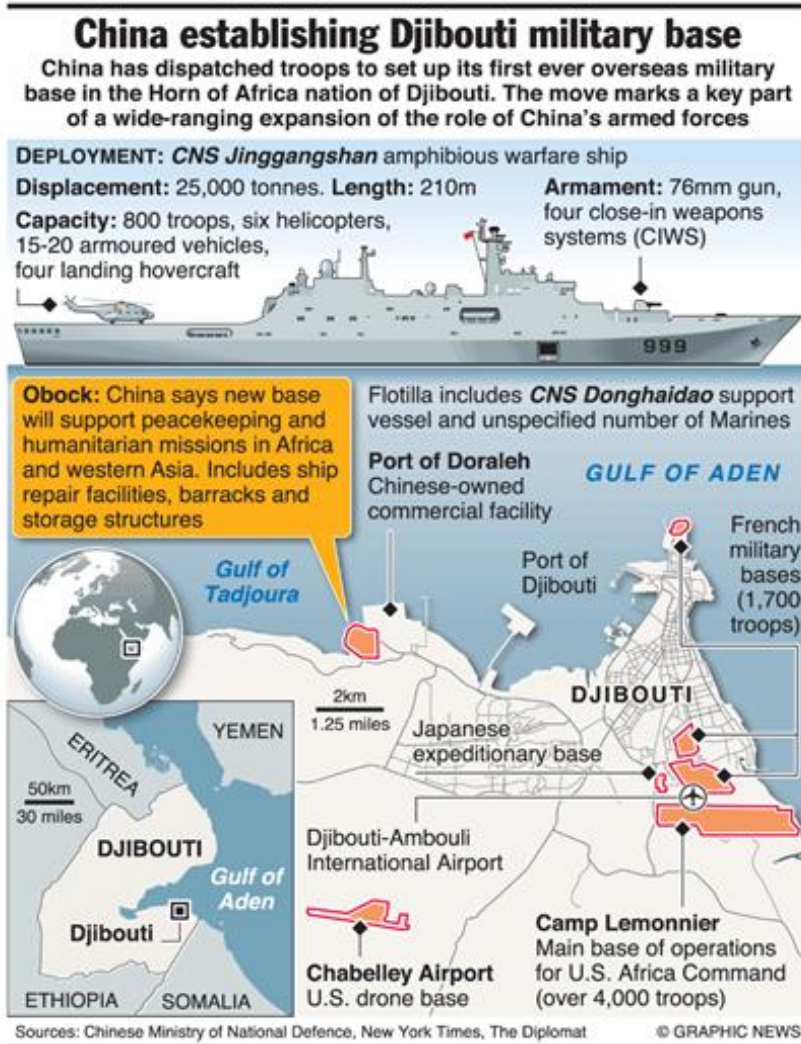
중국과 캄보디아는 1958년 수교를 맺었다. 70년대 초반에 들어선 친미 정권을 제외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줄곧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캄보디아 국가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캄보디아가 유치한 전체 해외직접투자(FDI) 410억 달러 중 180억 달러(약 43.9%)가 중국에서 유입되었다.⁴⁰⁾ 캄보디아는 2019년 레암(Ream) 해군기지 일부를 중국이 30년간 조차(租借)하는 것을 승인했다.⁴¹⁾ 중국은 인도-태평양 진출에 용이한 역내 군사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Transportation Network

40) 권지혜, “[특파원 코너] 중국의 군사기지”,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9158&code=11171225&sid1=col>(검색일: 2022.07.03).

41) 정재호,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독법(讀法)’: 확대된 국익, 원칙의 변경, 그리고 전략적 불확실성”, 『중소연구』 제45집 4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2, p.13.



출처: GlobalSecurity.org(위), Graphic News(아래)

〈그림 3-1〉 지부티 내 타국군 군사기지 현황 및 중국군의 영향력 확대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9년 기사에서 중국과 캄보디아가 비밀 협정을 맺고 중국이 캄보디아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양국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당시 훈 센(Hun Sen, 현재도 총리로 재임 중) 캄보디아 총리는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강력히 항의했고, 중국 국방부도 중국의 캄보디아 군사기지 활용에 대해 보도한 서방 언론에 대해 유언비어(rumor)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2022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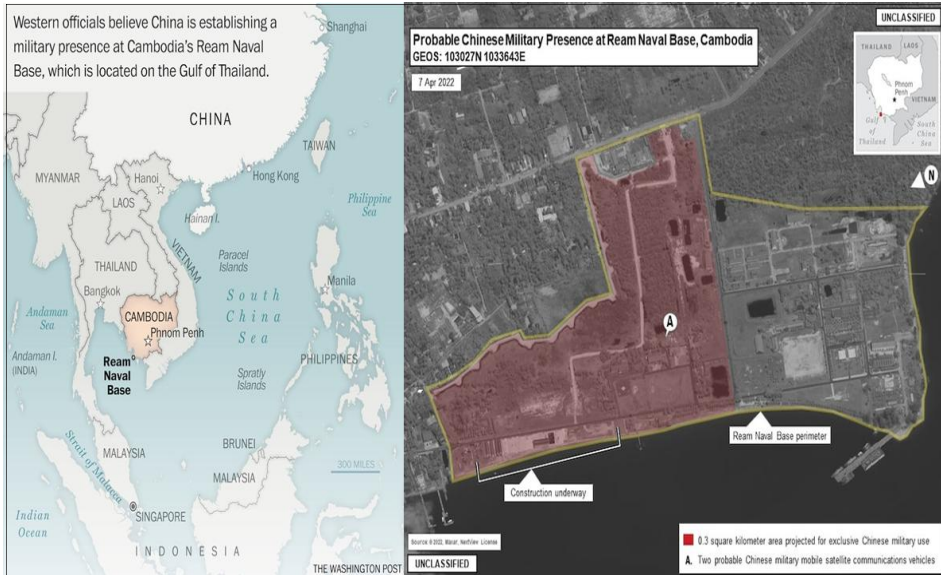
월 초, 베이징은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레암 기지의 일부(a portion of the base)를 중국 군대가 사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국 군대의 레암 기지 독점(exclusive)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고 과학자들도 시설을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미 캄보디아 대사관(the Cambodian Embassy in Washington)은 논평을 통해 캄보디아 헌법은 캄보디아 영토 내 어떠한 외국 군대의 기지 사용 및 주둔(presence)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헌법 조항을 결연히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레암 해군기지를 보수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캄보디아 해군의 역량을 강화시켜 해양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 조업을 포함한 해양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은 중국 군대가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의 북부 지역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밀리에 해군 시설을 증축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그림 3-2>(우) 참조.⁴²⁾

2022년 6월 8일 레암 해군기지 확장 착공식이 열렸다. 중국이 자금을 대는(China-funded) 기지 확장 착공식⁴³⁾에 테아 반(Tea Banh) 캄보디아 국방장관 등 캄보디아 국방부 수뇌부뿐만 아니라 왕 웬티엔(Wang Wentian) 주캄보디아 중국 대사도 참석했다. 미국 워싱턴은 작년 레암 해군기지 시설 증축 공사를 총괄하는 캄보디아 국방부 고위 장성을 제재한 바 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였다. 작년 미국무부 웬디 셰먼(Wendy Sherman) 부장관은 캄보디아를 방문해 캄보디아 내 중국 군대의 기지 주둔은 “주권을 훼손시키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장차 미국-캄보디아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훈 쎌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료들은 최근 미국, 호주와의 회의에서도 캄보디아 영토 내 외국 군대 주둔을 금지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중국 군대의 레암 해군기지 이용 사안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했다.⁴⁴⁾

42) Nakashima, Ellen and Cadell, Cate, “China secretly building naval facility in Cambodia, Western officials say”,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2/06/06/cambodia-china-navy-base-ream/>(검색일: 2022.06.06).

43) 테아 국방장관은 레암 해군기지 확장에 대해 캄보디아군을 현대화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발언했고, 중국군을 위한 기지 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중국 측 대표로 착공식에 참석한 왕 중국 대사는 “중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의 군사협력은 강철 같은 우정(friendship of steel)을 바탕으로 굳건하다”라고 말했다.

44) Mandhana, Niharika and Wong, Chun Han, “China to Upgrade Ream Naval Base in Cambodia, Fueling U.S. Concerns”,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china-to-upgrade-ream-naval-base-in-cambodia-fueling-u-s-concerns-11654674382>(검색일: 2022.07.01).



출처: 워싱턴 포스트(2022)

〈그림 3-2〉 레암 해군기지 부지 확장공사 및 중국군의 주둔 개연성

앤서니 알바니스 신임 호주 총리는 착공식 하루 전인 6월 7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고, 레암 해군기지 사용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알바니스 총리는 “우리(호주)는 최근 레암 해군기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베이징 정부는 투명하게 자국의 의도를 밝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레암 해군기지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⁴⁵⁾

중국과 캄보디아는 1958년 수교를 맺은 이후 현재까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세우는 상황에서도 캄보디아는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계속 지지해 왔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강력한(iron-clad)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의 자본을 활용해 자국의 레암 해군기지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군이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으로 레암 기지 일부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남중국해 일대에서 새로운 지역 안보 패러다임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의 9할을 자국의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남중국해를 장기간 향해 및 순시할 수 있는 군사기지(인공섬 제외)는 사실상 부재했다. 하지

45) Davidson, Helen, “Chinese military ‘to have exclusive use of parts of Cambodian naval bas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jun/07/chinese-military-to-have-exclusive-use-of-parts-of-cambodian-naval-base-ream-gulf-of-thailand>(검색일: 2022.09.02).

만 레암 해군기지의 증축 공사가 완공되고 그 부지 일부를 중국군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 해군은 대륙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타이 만(Gulf of Thailand) 일대에서 전략적 거점(a strategic foothold)을 확보하고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작전의 지속성(continuity of operations)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차이나 머니를 활용하여 해양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해양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의 뿔에 자리하고 있는 지부티 국토에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를 설치한 것에 이어, 인도-태평양 역내에 있는 캄보디아의 레암 해군기지를 조차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친중 노선을 취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국가 및 제도(islands)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비밀리에 제2, 제3의 레암 해군기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기지 확보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양 해군(blue-water navy)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 주도의 해양 질서를 변경하기 위해 해외 군사기지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육군 중심의 인민해방군을 개혁하여 해군력을 크게 강화해 나가고 있다.

IV. 인도-태평양 스크럼 전략과 역내 중견국의 균형전략

1. 역내 중견국 호주의 균형전략

최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견국(middle power) 호주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양국은 급변하고 있는 서태평양 및 남중국해의 안보 상황(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국방부는 2021년 9월 16일 AUKUS 성명을 내면서, 호주가 아세안(ASEAN)·태평양 우방들과 더불어, QUAD 및 Five Eyes 등과도 한층 강화된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와 관련하여 호주 국방부 산하에 핵추진잠수함 전담부서(a Nuclear-Powered Submarine Taskforce)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⁴⁶⁾ 2021년 9월 말, 미국, 영국, 호주 등

46) 호주 국방부는 급변하고 있는 호주의 지역 안보(regional security) 상황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conventional submarines)을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Ministry of Defence, Australian Government, “Joint media statement: Australia to pursue nuclear-powered submarines through new trilateral enhanced security partnership”, 16 September 2021, <https://www.minister.defence.gov.au/minister/peter-dutton/statements/joint-media-statement-australia-pursue-nuclear-powered-submarines>(검색일: 2022.05.20).

3국은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합동 해상기동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해상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함(USS Ronald Reagan)과 칼빈슨함(USS Carl Vinson), 퀸 엘리자베스함(HMS Queen Elizabeth) 등 항모 3척과 호주의 ‘헬기 항모’로 불리는 캔버라(HMAS Canberra) 강습상륙함 등 총 7척의 대규모 전력이 참가했다.⁴⁷⁾ 과거 호주 해군은 2015년 11월, 함정 2척을 남중국해로 이동시켜 중국 해군과 실사격 훈련(live-fire drills)을 포함한 합동 훈련을 한 바 있다.⁴⁸⁾ 바야흐로 2018년 4월, 호주 국방부는 자국의 앤잭함(HMAS Anzac)과 서세스함(HMAS Success) 등 전함 3척이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다자 훈련에 참가하고 해양 감시(maritime surveillance) 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진입했을 때, 중국 PLAN의 도전(방해)을 받았다고 브리핑했다. 당시 맬컴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해 “우리(호주)는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와 상공을 비행하는 권리를 계속 행사해 왔다. 이는 전 세계의 대양과 남중국해에도 적용되며 국제법적으로도 부합한다”⁴⁹⁾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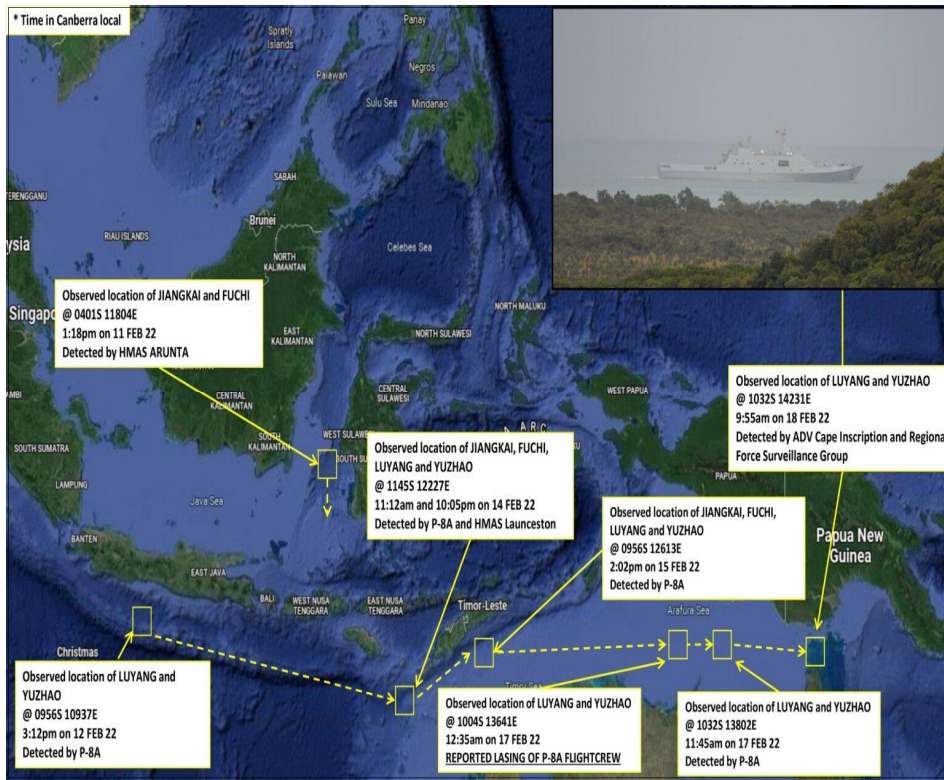
2022년 2월, 중국과 호주는 남중국해가 아닌 호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다시 대립했다. 중국의 함정 2척이 호주의 북부 EEZ 내로 진입했고 이에 호주 공군(RAAF)은 대잠 초계기(anti-submarine patrol aircraft) P-8A(포세이돈)를 해당 EEZ 해역으로 급파했다. 이후 호주 국방부는 중국 군함이 당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P-8A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 레이저(laser) 광선을 쏘았다고 브리핑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고, 쟁점은 격화되었다. 중국 국방부는 P-8A가 자국 군함과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까지 근접하여 위협 비행을 감행함과 동시에, 소노부이(sonobuoy/음파 탐지기)를 공세적으로 투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호주 공군이 선제적으로 중국 해군 함정의 진로를 방해하고 긴박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주 국방부는 P-8A가 중국 군함과 7.7km가량 충분히 이격된 거리에서 초계비행(fly on patrol) 임무를 수행했고, 초계기가 중국 군함에 가장 근접(4km)하여 비행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수상함에 대한 시각 관찰(a visual investigation of a surface warship) 임무 수칙을 수행하기

47) 조영신, “美·英 항모 3척 중국 포위...거세진 中 압박[특파원 다이어리]”,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2611394364591>(검색일: 2021.09.26).

48) Feast, Lincoln, “Australia to join Chinese navy exercises in South China Sea”,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southchinasea-usa-australia-idINL3N12S6IS20151029>(검색일: 2022.07.29).

49) 턴불 호주 총리가 발언했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maintain and practise the right of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throughout the world, and in this context, naval vessels on the world’s oceans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as is our perfect righ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Greene, Andrew, “Australian warships challenged by Chinese military in South China Sea”, 『ABC News』, <https://www.abc.net.au/news/2018-04-20/south-china-sea-australian-warships-challenged-by-chinese/9677908?nw=0&r=HtmlFragment>(검색일: 2022.06.01).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호주 국방부는 호주 공군이 매뉴얼과 국제법을 준수 하면서 비행했다고 강조했다. 호주 국방부는 중국 군함의 레이저 광선 투사 행위를 초계 기 조종사의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호주 국방부는 중국 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위협적인 레이저 광선을 투사한 이후, P-8A는 절차에 따라 인근 해역에 소노부이를 투하했다고 강조했다.⁵⁰⁾



〈그림 4-1〉 호주 북부 아라푸라해를 통과하는 PLAN Luyang급 구축함과 Yuzhao급 상륙수송함⁵¹⁾

50) Mahadzir, Dzirhan, “Australian Leaders Call for Investigation into Chinese Laser Harassment of Surveillance Aircraft; PLA Denies Wrongdoing”, 『USNI News』, U.S. Naval Institute, <https://news.usni.org/2022/02/21/australian-leaders-call-for-investigation-into-chinese-laser-harassment-of-surveillance-aircraft-pla-denies-wrongdoing>(검색일: 2022.07.29).

51) *ibid.* 참조.

1) QUAD 주도의 합동 해상 기동훈련과 호주 해군의 참가

미 해군과 인도 해군은 1992년부터 연례적으로 말라바르(Malabar) 합동 해상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말라바르 훈련은 필리핀해, 일본 연안, 페르시아만 및 벵갈만, 아라비아해 등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해양차단 작전(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s), 대잠전(anti-submarine warfare), 해난구조 작전(diving salvage operations), 상륙 작전(amphibious operations), 해적소탕 작전(counter-piracy operations) 등 군사 안보 및 비전통(non-traditional) 해양안보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후 말라바르 훈련은 2017년 QUAD 2.0이 재출범하고 QUAD 참여국인 일본과 호주⁵²⁾도 참여하면서 그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2021년 8월, QUAD 4개국의 함정은 괌(Guam) 인근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과 대공(anti-air warfare)·대함(anti-surface warfare)·대잠전 훈련을 4일간 합동으로 실시했다.⁵³⁾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륙을 ‘민주주의 다이아몬드’로 포위하는 형국을 취하는 QUAD 4개국 모두의 해군력이 참여하여 세(勢)가 증강된 말라바르 훈련은 중국의 해양 패권 도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호주 해군의 말라바르 훈련 참여는 호주가 미·중 간의 해경 전략에서 탈피하여 미국 중심의 안보 균형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21년 3월 비대면으로 최초의 QUAD 정상회의가 진행되었고, 같은 해 9월 워싱턴 D.C.에서 첫 대면 회담이 개최되었다. QUAD 대면 정상회의에 앞서, 호주는 말라바르 훈련(2021년 8월)이 끝나고 9월 11일, 뉴델리에서 인도와 첫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진행했다. 2+2 실무회담에서 호주는 미국·인도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말라바르 훈련에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태평양 일대에서 미국·호주가 격년으로 진행해 왔던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er) 해상훈련에 인도 해군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⁵⁴⁾ 말라바르 및 탈리스만 세이버 해상훈련은 모두 미 해군이 전통적으로 참여하는 합동 기동훈련이다. 호주 해군과 인도 해군이 각각 탄력적으로 말라바르 훈련 및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참가한다면, 대중 견제를 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QUAD의 해상 결속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해양안보 부문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52)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5년부터 말라바르 훈련에 참가해 왔지만, 호주 해군은 2021년에 처음으로 본 훈련에 참가했다.

53) 조비연, “미중 간 전략경쟁과 여타 중견국의 균형-편승 스펙트럼”, 『국제지역연구』 제30집 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p.84.

54) 조비연(2021), *op. cit.*, pp.85-86.

2. 역내 중견국 인도의 균형전략

1) 인도의 인도·태평양 합동 해상훈련 강화

2001년 인도와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듬해에 양국은 정부 간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을 체결했다. 이후 2011년 양국 관계는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Global Strategic Partnership)으로 격상되었다.⁵⁵⁾ 결정적으로 2016년 8월 인도와 미국은 ‘군수교류 양해각서(Logistics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 LEMOA)’⁵⁶⁾를 체결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준 군사동맹에 가까운 강력한 우방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⁵⁷⁾

인도와 미국은 2019년 11월 인도의 동부 해역 벵골만(the Bay of Bengal)에서 대규모 합동 해상훈련인 ‘타이거 트라이엄프(Tiger Triumph)’ 훈련을 진행했다. 전술한 합동 해상훈련에는 인도의 육·해·공군이 최초로 모두 참여했다.⁵⁸⁾ 아울러 최근 인도는 미-인도 양국 해군만이 참가했던 말라바르 훈련에 QUAD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인도 해군과 미 해군은 1992년부터 매년 합동으로 말라바르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인도 정부는 호주 해군의 말라바르 훈련 참가를 한동안 거부하였지만, 2021년 개최된 본 합동 훈련에 호주 해군도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⁵⁹⁾ 이로써 말라바르 훈련은 사실상 QUAD 4개국의 해군 전력이 모두(일본 해상자위대는 2015년부터 참가) 참가하는 합동 해상훈련으로 그 규모와 위상이 확대되었다. 증강된 말라바르 합동 해상훈련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중국의 해양 수정주의를 견제하고 QUAD가 추구하는 해양 안보(규칙에 기반한 질서, 항행의 자유 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2) 인도와 인도양 연안 국가 간 관계 강화

인도는 2010년대 들어 인도양의 연안 국가들과 경제적·안보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이웃 국가 우선 정책(Neighborhood First Policy)’을 추진하면서 인도양 연안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⁶⁰⁾ 2015년 당시 외교부

55) 박용수, “인도의 대중국 전략”, 『평화연구』 제30집 1호,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2, pp.97-98.

56) 본 협정의 체결로 미국은 인도의 여러 군사기지 시설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졌다. 아울러,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 및 기술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57) 박용수(2022), *op. cit.*, p.99.

58) 박용수(2022), *op. cit.*, p.101.

59) 조원덕, “남아시아·인도양에서 중국의 부상과 인도의 대중국 전략 변화”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55 [202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 2021, p.11, pp.15-17.

장관을 역임했던 자이산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장관은 자국 정부가 그동안 인도양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주변 국가들과의 대외관계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⁶¹⁾ 현재 인도 정부는 중국의 남방(南方)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여 인도양 역내에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와의 관계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양 역내 주변 국가 중 방글라데시와 가장 높은 수준의 방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5-1>은 양국 간 국방·안보 고위급 회담을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

<표 5-1> 인도-방글라데시 국방·안보 분야 고위급 회담

연도	주요 내용	비고
2015년	양국 정상회담 (인도 모디 총리의 방글라데시 방문)	국경 분쟁 합의 체결
2016년	인도 국방장관의 방글라데시 방문 → 양국 국방장관 회담	최초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
2017년	인도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방글라데시 방문	인도 3군 참모총장 전원이 2017년 한해에 방글라데시 방문
2018년	양국 간 연례 국방장관 회담 및 양국 3군 참모총장 연례회담	양국 3군 참모총장 간의 최초의 연례회담 개최

출처: 권재범(2021) 인용(24p.)

진술한 바와 같이 인도는 방글라데시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방글라데시의 대중국 군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인도는 방글라데시에게 총 50억 달러 규모의 신용한도 대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2018년에도 5억 달러 상당의 신용한도 대출을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인도가 남아시아 역내 국가 중 방글라데시에게 최초로 군사·무기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용한도 대출을 지원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2019년 양국 해군은 최초로 합동 해상훈련(Exercise Bongosagar)을 실시하면서 양국 해군 간의 상호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듬해 2020년에 개최된 합동 해상훈련에서 인도는 최근 자체 건조한 대잠 초계함(INS Kiltan)과 유도미사일 탑재 초계함(INS Khukri)을 전력(戰力)으로 참가시켰다.

60) 김찬완, “모디정부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제24집 2호, 한국의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18, pp.29-50.

61) 권재범, “중국의 인도양 진출과 인도의 대응 분석: 인도-인도양 연안국 간의 안보·전략적 관계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8집 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21, p.23.

인도는 인도양 역내 국가인 스리랑카와 2005년 합동 해상훈련(Exercise SLINEX)을 최초로 실시했다. 이후 양국은 2010년부터 합동 해상훈련을 격년제로 정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인도 해군은 대잠·대공 전투능력을 갖춘 최신에 구축함 2척의 전력을 Exercise SLINEX에 참가시켰고 실사격 훈련도 병행했다.⁶²⁾

V. 결론 및 함의

미국은 동아시아·서태평양에서 굴기하는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도전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WTO에 가입한 중국은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자국 내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일당 독재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013년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대국굴기, 해양굴기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며 미국에게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했다. 일대일로 및 진주목걸이 전략 등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은 평화로운 부상의 종결을 의미했다. 미 국방부는 2019년 6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러시아보다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를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역내를 관리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동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도 본 전략을 수정·보완하여 강력한 대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2007년 사장된 QUAD를 2017년 재출범시켰다. 재출범한 QUAD는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협의체 성격이 뚜렷하다. 지난 2010년대 초·중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헤징 전략(hedging)을 추진했던 중견국(middle powers) 호주와 인도가 본 협의체에 다시 동참한 것은 동맹·우방을 활용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QUAD 국가들과 역내에서 정기적으로 합동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하여 안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2021년 9월 출범한 AUKUS는 미국의 ‘최상위 동맹’으로 불린다. 핵보유국 미국과 영국은 비보유국인 호주에게 핵추진 잠수함을 수출하고 관련 핵심 기밀들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호주는 인-태 전략의 핵심 협의체인 QUAD와 AUKUS에 모두 참여하면서 남태평양 역내에서 중국을 핵심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UKUS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신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양자 동맹과 NATO에게 동맹의 서열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견국 호주를 역내의 주요한 행위자로 끌어들었

62) *ibid*, pp.23-30.

고, 호주와 협력하면서 대중국 견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AUKUS-QUAD-Five Eyes로 네트워크화된 3-4-5 스크럼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NATO와 같은 다자주의 안보 협의체는 아니지만,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전통적으로 일원화된 양자 동맹의 틀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구조적 현실주의자 월츠의 '세력균형' 이론을 발전시킨 왈트의 '위협균형' 이론을 토대로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왈트가 제안했던 복합 위협 독립변수(① 전체적 힘, ② 공격적 군사력(④ 공격적 의도는, ② 공격적 군사력 범주에 포함시켰음), ③ 지리적 인접성)를 토대로 미국이 중국을 안보 위협(threat) 세력으로 여긴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중국의 부상과 위협 인식에 대응하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세력균형' 전략이 '정적인(static)' 현상 유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냉전 이후, 일극 체제의 미국은 역사 속의 미국이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중국의 패권 부상과 함께 힘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인-태 전략을 가동하면서 역내 주요 행위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3-4-5 스크럼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측 가능한 시기 내(for the foreseeable period)에 중국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미국도 국가 대전략인 인-태 전략을 추진하면서 스크럼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여, 변동 가능한 현상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크럼 전략은 역내 주요국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균형전략에 동참한 국가들이 각기 처해있는 안보 입장을 직시하고 스크럼 행위자들의 안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미국은 더는 일극 체제의 미국이 아니기에, 역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안보 스크럼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본 스크럼 전략의 핵심이 되는 중견국 중 하나인 호주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2030년경 핵추진잠수함을 받기로 하였다. 환원하면, 호주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 고급 기술에 접근하기에는 중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역내 주요 국가들이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G2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미국의 스크럼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역내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민주주의의 리더 격인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스크럼 전략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미국은 동맹·우방국들이 다 같이(align) 스크럼 전략을 펼쳐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는 것이 그들의 안보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헤징 전략을 추진했던 인도의 안보 전략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

다. 인도는 해상에서 벗어나 미국 중심의 균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인도 양국 해군이 1992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했던 말라바르 해상 기동훈련에 2021년, 일본 해상자위대 및 호주 해군 등 QUAD 4개국 해군력이 모두 참가하면서 훈련 규모와 위상은 격상되었다. 이는 ‘민주주의 다이아몬드’ 형국을 취하고 있는 QUAD 차원에서 중국의 해양 팽창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3-4-5 스크림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 외에도 역내 중견국들이 균형전략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내부(민주주의 국가들)를 단속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스크림 전략을 강화하고, 스크림 전략에서도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군사(해양)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본토 시장에 대해 기술 독점적 또는 우위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할 수 있다. AUKUS의 영국과 호주, QUAD의 호주, 인도 등 영연방 국가들 간의 새로운 세력균형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22년 10월,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리시 수낙(Rishi Sunak) 전 장관은 영국 역사상 최초의 인도계 총리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영연방에서 영국과 인도는 새로운 정치적 관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영연방 국가인 호주에게도 정치적 자극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권재범, “중국의 인도양 진출과 인도의 대응 분석: 인도-인도양 연안국 간의 안보·전략적 관계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8집 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21.
- 김기수·박종철,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에 대한 연구”, 『韓中社會科學研究』 제19권 제2호(통권 59호), 2021.
- 김덕기, “미국의 공세적 인도-태평양 전략 관점에서 본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논단』 제100집 1호, 한국군사학회, 2020.
- 김성한·김민성, “인도-태평양전략 대 일대일로의 충돌 동향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전략연구』 제28집 2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 김용민, “AUKUS 출범으로 변화하는 유럽안보 -전략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40집 1호, 한국유럽학회, 2022.
- 김재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략의 성격과 성패의 관건”, 『新亞細亞』 제29집 2호, 신아시아연구소, 2022.
- 김찬완, “모디정부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제24집 2호, 한국의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18.

- 김한권, “중국 신형국제관계의 본질과 함의”,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8-1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2018.
- 박용수, “인도의 대중국 전략”, 『평화연구』 제30집 1호,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2.
- 양정학·김순수, “중국의 지부티 군사보급기지 건설의 전략적 함의”, 『新亞細亞』 제24집 2호, 신아시아 연구소, 2017.
-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경기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9.
- 이정훈·박재적,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상항인지’ 현황과 ‘쿼드(Quad)’ 국가의 기여: 쟁점 및 전망”, 『국가안보와 전략』 제20집 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임경환,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와 호주의 대응”, 『東亞研究』 제30권 4호, 2018.
- 정재호,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독법(讀法)’: 확대된 국익, 원칙의 변경, 그리고 전략적 불확실성”, 『중 소연구』 제45집 4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2.
- 정호섭, 『미·중 패권경쟁과 해군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총서 93, 2021.
- 조비연, “미중 간 전략경쟁과 여타 중견국의 균형-편승 스펙트럼”, 『국제지역연구』 제30집 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 조양현,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 일본 외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3 [201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 조원득, “남아시아·인도양에서 중국의 부상과 인도의 대중국 전략 변화”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55 [202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 조현덕·이정태,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를 위한 투트랙 전략 -맞대응 및 회피전략을 중심으로-”, 『大韓政治學會報』 제29집 4호, 대한정치학회, 2021.
- Ferguson, Niall and Schularick, Moritz, “The End of Chimerica”, Working Paper 10-037, Harvard Business School.
- O’Hanlon, Michael, “A U.S. Grand Strategy of Resolute Restraint and Indo-Pacific Allies,” 『한국국가전략』 제6집 1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 O’Rourke, Ronald,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 page of summary(검색일: 2021.07.30).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2. 인터넷(외국 정부기관) 자료

- Ministry of Defence, Australian Government, “Joint media statement: Australia to pursue nuclear-powered submarines through new trilateral enhanced security partnership”, 16 September 2021, <https://www.minister.defence.gov.au/minister/peter-dutton/statements/joint-media-statement-australia-pursue-nuclear-powered-submarines>(검색일: 2022.05.20).
- The White House, “Joint Leaders Statement on AUKUS”, 15 September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9/15/joint-leaders-statement-on-aucus/>(검색일: 2022.05.01).
-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America’s Place in the World”(검색일: 2022.09.20);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to Department of Defense

Personnel”(검색일: 2022.07.09).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Prime Minister Modi of India, Prime Minister Morrison of Australia, and Prime Minister Suga of Japan in the Virtual Quad Leaders Summit,” 12 March 2021(검색일: 2022.09.20).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RC 2020”(검색일: 2022.07.09).

3. 인터넷(신문) 자료

권지혜, “[특파원 코너] 중국의 군사기지”,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9158&code=11171225&sid1=col>(검색일: 2022.07.03.).

김규환, “중국 경제국사(國師) 린이푸의 위험한 낙관론”,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4029015>(검색일: 2022.09.14.).

“국제논평: 60%는 미국이 경쟁자에게 준 최저선”, 『China Radio International』, <http://korean.cri.cn/1660/2018/08/10/1s259382.htm>(검색일: 2022.09.01.).

연합뉴스, “중국 대체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 부상 확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816800055>(검색일: 2022.03.10.).

유상철, “중국 경제, 2030년 美 추월...2050년엔 美 패권 종지부”,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4466>(검색일: 2022.03.11.).

이장훈, “날개 단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주간동아』,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832374/1>(검색일: 2022.05.01.).

조영신, “美·英 항모 3척 중국 포위...거세진 中 압박[특파원 다이어리]”,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2611394364591>(검색일: 2021.09.26).

조은정, “바이든 대중국 강경책 유지할 것...미국 경쟁력 강화”, 『VOA』,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biden-china-policy/6048417.html(검색일: 2022.04.09.)

Davidson, Helen, “Chinese military ‘to have exclusive use of parts of Cambodian naval bas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jun/07/chinese-military-to-have-exclusive-use-of-parts-of-cambodian-naval-base-ream-gulf-of-thailand>(검색일: 2022.09.02.).

Feast, Lincoln, “Australia to join Chinese navy exercises in South China Sea”,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southchinasea-usa-australia-idINL3N12S6IS20151029>(검색일: 2022.07.29.).

Greene, Andrew, “Australian warships challenged by Chinese military in South China Sea”, 『ABC News』, <https://www.abc.net.au/news/2018-04-20/south-china-sea-australian-warships-challenged-by-chinese/9677908?nw=0&r=HtmlFragment>(검색일: 2022.06.01).

LaGrone, Sam, “U.S. AFRICOM Commander Confirms Chinese Logistics Base”, 『USNI News』, U.S. Naval Institute, <https://news.usni.org/2015/11/25/u-s-africom-commander-confirms-chinese-logistics-base-in-djibouti>(검색일: 2022.05.02.).

Mahadzir, Dzirhan, “Australian Leaders Call for Investigation into Chinese Laser Harassment of Surveillance Aircraft; PLA Denies Wrongdoing”, 『USNI News』, U.S. Naval Institute, <https://news.usni.org/2022/02/21/australian-leaders-call-for-investigation-into-chinese-la>

- ser-harassment-of-surveillance-aircraft-pla-denies-wrongdoing(검색일: 2022.07.29).
- Mandhana, Niharika and Wong, Chun Han, “China to Upgrade Ream Naval Base in Cambodia, Fueling U.S. Concerns”,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china-to-upgrade-ream-naval-base-in-cambodia-fueling-u-s-concerns-11654674382>(검색일: 2022.07.01.).
- Nakashima, Ellen and Cadell, Cate, “China secretly building naval facility in Cambodia, Western officials say”,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2/06/06/cambodia-china-navy-base-ream/>(검색일: 2022.06.06.).
- Wong, Kristina, “China’s military makes move into Africa”, 『The Hill』, <https://thehill.com/policy/defense/261153-chinas-military-makes-move-into-africa/>(검색일: 2022.06.20.).

【 Abstract 】

The U.S. Indo-Pacific Strategy with Minilateralism :
Based on Balance of Threat Theory

Cho, Hyun-deok

The United States regards China as a contender that challenges a ‘rule-based order’ in East Asia and the West Pacific. China’s One Belt, One Road and String of Pearls signified the termination of a peaceful rise.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U.S. considers China’s rise as a threat, based on Walt’s *Balance of Threat Theory* as developed from Waltz’s *Balance of Power Theory*. Accordingly, the U.S. administrations have implemented the ‘Pivot to Asia’ and ‘Indo-Pacific Strategy’ to maintain balance and leverage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2017, the U.S. re-established QUAD to play a critical role in containing China. The middle powers of Australia and India previously promoted hedging between the U.S. and China. With the establishment of QUAD 2.0, the two middle powers have demonstrated that they are inclined to partake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UKUS was founded in September 2021 and is regarded by some as America’s ‘most important allied entit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U.S. will promote the ‘scrum strategy’, which consists of AUKUS, QUAD, and Five Eyes. It also implies that the U.S. is looking to complement the traditional framework of bilateral alliances within the Indo-Pacific region. This paper aims to interconnect both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scrum strategy, and then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scrum strategy.

Key Words : Indo-Pacific Strategy, Balance of Threat Theory, minilateralism,
AUKUS-QUAD-Five Eyes, scrum strategy

• 논문투고일 : 2023년 4월 30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3년 5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5월 15일

